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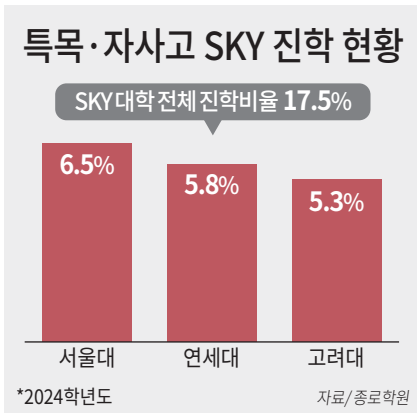
의대 선호, 지방 기피 현상에 특목고 출신 17.5% 'SKY'로

지방 과학기술원 진학 6.4%p 감소 의대 열풍에 이공계 기피현상 반영

지난해 특목·자사고 출신 학생들의 17.5%가 이른바 'SKY' 대학에 진학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 대비 3.1%p 증가한 수치로, 같은 기간 지방 과학기술원 진학 비중은 6.4%p 낮아지며 대조적인 모습을 보였다. '의대 열풍' 영향으로 이공계 기피 현상이 반영된 결과로 해석된다.

4일 종로학원이 지난 2024학년도 전국 4년제 222개 대학 신입생의 출신 교를 분석한 결과, 과학·국외외국어 등 특수목적과 자율형사립고, 영재학교 등 졸업생 중 대학 진학자는 2만1426명으로, 이 가운데 17.5%인 3748명이 서울대·고려대·연세대 등 3개 대학에 진학했다. 전년(3635명) 대비 113명(3.1%) 증가했다.

이들이 가장 많이 입학한 대학은 서울대가 1390명으로 6.5%를 차지했다.



이어 ▲고려대 1232명 ▲연세대 1126명 ▲성균관대 1063명 ▲한양대 817명 ▲경희대 786명 ▲한국외대 759명 ▲중앙대 715명 ▲한국과학기술원 611명 ▲이화여대 527명 순이다.

문제는 이처럼 최우수권 학생들의 이공계특성화 대학 진학자 수가 감소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들 중 이공계 학생으로 꼽히는 과학·영재학교 출신의 과학기술원 등 이공계특성화 대학 진학자 수는 2023학년도 1094명에서 2024학년도 1024명으로 전년대비

70명(6.4%p) 감소했다. 대구경북과학기술원은 41명(2023학년도)에서 23명(2024학년도)으로, 43.9%p 감소했고, ▲울산과학기술원 159명에서 118명으로 25.8%p 감소 ▲포항공대 189명에서 178명, 5.8%p 감소 ▲한국과학기술원 583명에서 564명으로, 3.3%p 줄었다.

2024학년도 과학·영재학교 출신 4년제 대학 진학자 수는 2773명으로 이중 한국과학기술원에 564명(20.3%)이 입학해 가장 큰 비중을 보였지만, ▲서울대 503명(전년 448명) ▲성균관대 196명(전년 87명) ▲포항공대 178명(전년 189명) 등 일반 대학 진학 비율이 높아지는 추세다.

임성호 종로학원 대표이사는 "이처럼 과학·영재학교 출신 학생들의 이공계특성화 대학 진학자 수가 감소하는 이유는 의대 선호 현상과 더불어 지방권 소재 대학 기피 현상이 반영된 결과로 풀이된다"고 설명했다.

/이현진 기자 lhj@metroseoul.co.kr

서울 지역주택조합서 부적정사례 94건 적발

7곳 대상 전문가 합동 실태조사 실태조사 방해 등 17건 고발조치

#. A지역주택조합은 연간 자금운용계획서와 월별 자금입출금명세서 등을 사업연도별로 분기마다 작성하고 이를 조합원이 알 수 있도록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월별 자금입출금명세서를 작성 및 공개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2. B지역주택조합은 매년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내 정기총회를 개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를 미루거나 열지 않았다. 주택조합의 발기인은 조합원 모집 신고가 수리된 날로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 주택조합 설립 인가를 받지 못한 경우 총회의결을 거쳐 주택조합의 사업종결 여부를 결정하도록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총회를 개최하지 않고 있다.

서울시는 지역주택조합 사업을 추진 중인 7곳을 대상으로 지난 6~7월 전문가 합동 실태 조사를 벌이고 약 100

건의 부적정 사례를 적발했다고 4일 밝혔다.

위반 사항은 ▲실태조사 방해·기피 ▲자금운용계획서 등 정보공개 부적정 ▲감

감이 자금 집행·회계자료 작성 등이었다. 시는 이번에 적발된 94건 가운데 17건은 고발 조치하고, 4건은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제도 기간을 거친 뒤에도 시정되지 않을 경우 규정에 따라 행정 조치할 계획이라고 시는 덧붙였다. 시는 조합별 세부 지적사항은 각 조합이 운영 중인 누리집을 통해 가입자에게만 공개토록 했다. 세부 지적사항이 외부에 공개될 경우, 원활한 사업 추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각 조합 누리집을 통해 조합 가입자만 확인할 수 있게 했다고 시는 설명했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실장은 "지역주택조합으로 인해 조합원이 피해 보는 일이 없도록 하반기에도 전수조사를 진행해 부적정 사항을 계속 바로잡아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현정 기자 hjk1@

고양시, 혁신 기술로 미래도시 만든다

거점형 스마트시티 조성에 402억 투입 디지털트윈 등 8가지 스마트서비스

고양시는 '거점형 스마트시티' 조성 사업을 통해 디지털 트윈, 교통 최적화, 수요응답형 버스, 드론밸리, 지능형 행정서비스, 스마트 폴 및 미디어 월, 데이터 허브 등 8개의 혁신적인 스마트 서비스를 도입하며, 미래 도시의 청사진을 그리고 있다.

작년 5월, 고양시는 국토부의 '거점형 스마트시티' 공모사업에 선정된 이후, 지난 25일 '2024 제2차 지방재정 중앙투자심사'를 통과했다. 이로써 고양시는 오는 10월까지 실시계획을 완료하고 내년 말까지 단계적으로 스마트 시티 서비스를 추진할 계획이다.

고양시는 한국국토정보공사(LX), 진우에이티에스 등 8개 업체와 상호협력하여 시민 맞춤형 서비스를 준비 중이다. 총 사업비 402억 원 중 국비 200

억 원, 시비 200억 원, 민간투자 2억 원을 포함해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디지털 트윈은 현실과 동일한 가상 세계를 구현하여 도시 전역의 3차원 도시 공간을 구축하는 프로젝트이다. 고양시는 이를 통해 1기 신도시 재건축, 3기 신도시 계획, 도심항공교통(UAM) 최적 경로 설정, 기반침하 실시간 관측 등에 활용할 예정이다.

대중교통 서비스에서는 수요응답형 버스를 운영하여 정해진 노선과 시간표 대신 탑승자의 사전 예약과 스마트폰 호출을 통해 현장 결제를 받아 탄력적으로 버스를 운영할 계획이다.

이동한 고양시장은 "스마트 기술의 최종 목표는 시민의 삶을 편리하고 안전하게 만드는 것"이라며, "앞으로도 시민 생활을 개선하고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기반 시설을 지속적으로 구축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고양(경기)안성기 기자 ask9990@

둔촌주공 재건축 단지에 병설유치원 신설

12학급 규모 2028년 3월 개원 예정

'최대 규모' 재건축 단지로 꼽히는 서울 강동구 올림픽파크포레온(둔촌주공) 단지 내에 병설유치원 신설이 확정됐다.

서울시강동송파교육지원청은 '서울 둔촌초등학교 병설유치원' 신설을 확정했다고 4일 밝혔다.

교육부 중앙투자심사를 통과함에 따라, 서울둔촌초등학교 병설유치원은 특수 2학급을 포함해 12학급 규모로

오는 2028년 3월 개원할 예정이다. 정원은 184명이다. 시교육청은 올해 공유재산심의 및 관리계획 의결 후, 내년 설계 공모 및 설계 확정을 거쳐 2026년 공사착공에 들어갈 예정이다.

이는 1만2032가구 규모 재건축 단지인 올림픽파크포레온 아파트와 강동송파 1취학 권역(길동, 천호3동, 둔촌1~2동) 등 지역 내에 유아 자녀를 둔 학부모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앞서 올림픽파크포레온 재건축정비사업 진행에 따라, 증가하는 학생들을

수용할 교육기관 신설은 꾸준히 요구돼 왔다. 이에 따라 강동송파교육지원청은 병설유치원 6학급을 포함한 가정 둔촌일초 신설을 추진했으나, 지난 2020년 12월 교육부 중앙투자심사 결과 부적정 판단을 받으며 추진되지 못했다.

그러나 강동송파교육지원청은 유아교육여건 개선을 위해 유치원 설립계획을 수정·보완해 가며 지속적으로 추진했으며 그 결과 지난 7월 교육부 중앙투자심사에서 설립 승인을 받았다.

/이현진 기자

경북도, 경북형 적극행정 체계화 시책 시행 오세훈, '중관촌' 시찰

도민 민원, 행정쟁송 발생 문제 해결

경북도는 이번 달부터 신속한 도민 권리구제를 위해 행정기본법을 기반으로 '경북형 적극행정 체계화'시책을 시행한다. 이번 시책은 법령 및 조례 규칙상 재량이 있어도 소극적이고 관행적인 그림자 규제로 도민 민원과 행정쟁송이 지속해서 발생하는 문제 해결을 위해 추진한다.

주요 내용은 행정처분 시 관련 공무원이 행정기본법에 부합하는지 심도 있게 사전검토하고, 처분일로부터 30

일 이내 이의신청할 수 있음을 의무적으로 고지하고, 이의신청 시 공무원이 변호사 자문과 자체 사전컨설팅 감사를 체계적으로 활용하며, 적극 행정 공무원에 대한 면책을 확대한다.

이를 통해 일선 행정청의 권한과 책임을 강화, 행정기본법 원칙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한 적극 행정처분이 이루어지게 해, 도민 불편을 해결함과 동시에 지방행정의 민주성, 적법성, 적정성, 효율성, 신속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경북=나영조 기자 ray6061@

서울시는 오세훈 시장이 지난달 31일(이하 현지 시각) 베이징시 서북부에 위치한 중국판 실리콘밸리 '중관촌'을 방문해 창업 지원 시설과 인재 육성 프로그램을 살펴보고 한중 스타트업의 글로벌시장 진출을 위한 전략을 모색했다고 4일 밝혔다. 오 시장은 중관촌 내 창업거리(Inno-way)를 찾아 중국 정부의 창업 인큐베이팅 시스템을 확인했다. 첨단기술 집결지인 중관촌은 바이두, 레노버, 텐센트, 샤오미 등 중국을 대표하는 글로벌 기업을 탄생시킨 하이테크 기지이다.

/김현정 기자

오늘의 날씨

8월 5일 (월)
음력: 7월 2일

수도권 날씨: 28~34°C

운동 지수: [Progress bar]

빨래 지수: [Progress bar]

세차 지수: [Progress bar]

외출 지수: [Progress bar]

지역별 날씨: 연천 25/33, 동두천 26/33, 가평 25/34, 파주 25/33, 서울 28/34, 양평 26/33, 인천 27/32, 수원 27/33, 용인 27/33, 평택 26/34, 백령도 25/32

자료제공: Kweather 케이웨더(주) www.kweather.co.kr

뉴스비타민 TV와 함께하는 메트로 뉴스



▲트럼프 "해리스, 불법 이민 책임 있어...법질서 회복할 것" /사진 뉴시스
▲이스라엘, 요르단강 서안 공격...하마스 지휘관 포함 5명 사망

▲미국·영국, 레바논서 자국민 즉시 출국 권고...중동 혼란 심화
▲자산 380조원 중국보험사 '안방보험' 파산...동양생명·ABL생명 매각 전망



▲헤즈볼라, 이스라엘에 로켓 수십 발 발사...이란 보복 공격 임박
▲이집트, 이스라엘에 라파·필라델피 통로 철수 요구 /사진 뉴시스